

환경일보 홈 >> 환경 인재양성 실무 강화해야



오버추어 스폰서배너

- CPC 네트워크 배너 -

- ✓ 한번의 등록으로 다양한 사이트에 동시 노출!
- ✓ 성과지향의 합리적인 클릭당 과금 방식!
- ✓ 무료 배너 제작 서비스 (단, 일정 금액 이상 집행 시)

Translation

+ -











환경 인재양성 실무 강화해야

서울대서 환경경영학 국제 세미나 열려
국내 교육과정 확대 및 산학 협력 필요

2011년 07월 28일 15:58

환경일보 정윤정 기자



▲ 7월27일 서울대에서 열린 '환경경영학 및 지속가능성학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세미나'가 개최됐다. <사진=정윤정 기자>

[환경일보 정윤정 기자] 세계는 자연 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면서 환경을 보호하는 두 가지 해결 과제에 당면해 있고,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로의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환경 경영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대에서 열린 '환경경영학 및 지속가능성학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세미나'에서 서울대학교 연합전공 글로벌환경경영학 윤여창 주임 교수는 "대학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세계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학생들을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제2의 전공’ 인식 및 인력 부족

서울대는 이번 국제 세미나를 통해 환경 경영학을 앞서 교육하고 있는 세계 유수의 대학들에서 관련 교수진을 초청해 국내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커리큘럼을 강화하기로 했다.

1970년대에 시민 사회 운동과 환경 문제에 대한 논의들은 한국의 대학과 정부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했고, 서울대는 환경영향평가, 생태 경제학, 생태계 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에 관한 강의를 발전시켜왔다.

서울대의 환경경영학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생들이 인간 사회와 자연의 관계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와 세계 속에서 기업, 정부, 지자체와 환경 문제에 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이 교육 프로그램이 제시한 인재상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업 경영인, 지속가능한 정책을 제정하는 정치인, 세계 사회에서 상호협력과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국제기관 전문가 등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대학교 연합전공 글로벌환경경영학 윤여창 주임 교수 <사진=정윤정 기자>

윤 교수는 환경경영학과의 도전 과제에 대해 “국내에서 환경 경영학은 여전히 여러 학과에 걸쳐있어 주임 교수인력이 부족하며 제2전공이라는 인식이 있다. 무엇보다 산업계 및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대, 살아있는 현장 실습

워싱턴 대학의 환경 경영학은 1993년 경영대에서 최초로 도입했고 그 후 환경 관련 학과로 옮기는 과정을 거쳐 지난 2009년 환경학과가 형성됐다.

이 교육은 환경적 이슈에 대한 문제해결 중심으로 이뤄지고 다양한 분야에 걸친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과 현장에서 학생들이 팀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구성됐다. 실습 분야는 환경정책, 환경 산업, 과학기술 등이 있다.

환경정책에 관한 수업에서는 정책 수립의 과정 및 자연자원, 기후변화 대응, 국제기구 경영 등에 관한 정책을 가르치고 환경 산업 분야에서는 경영 전략 및 실제 클라이언트를 만나 의견을 듣고 조사하는 등 실제적인 교육을 진행한다.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환경 분야 의사 결정에 있어서 과학 정보의 역할과 환경 위생의 위기관리 및 수자원 경영 등을 교육한다.

워싱턴 대학의 환경경영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국립산림과학원 설미현 박사는 “많은 학생들이 실용적인 학문이라 좋아한다”며 “환경 경영 프로그램은 환경 분야 지도자와 관리자를 양성할 수 있는 워싱턴 대학의 주요 교육으로 자리매김 했고 대학원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에 걸친 경험을 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일대, ‘국제 지도자 양성’ 비전삼아

한편 기퍼드 핀 쇼(Gifford Pinchot)와 헨리 그레이브스(Henry Graves)는 1900년도에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미국 최초의 산림학과를 예일대에 설립했다. 예일대 산



▲ 국립산림과학원 설미현 박사 <사진=정윤정 기자>



▲ 서울대 박주영 박사 <사진=정윤정 기자>

다.

yoonjung@hkbs.co.kr

환경일보 정윤정 기자

▶ 정윤정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c)환경일보(http://www.hkb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추천수 : 0

 **환경 인재양성 실무 강화해야** [↓ 퍼가기 ?](#)

환경일보 **구독+** | 조회 2 | 메시지 0

댓글 0개 |  | **워인글 0개** [▲ TOP](#)

▶  엘 시스템아 선구자 '수잔 시먼'과 함께하는 3일의 기적

▶  다음글이 없습니다.

림학과는 오늘날 산림환경학과로 발전해 전 세계의 자연 자원을 보호하는 국제적인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보다 큰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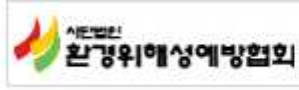
예일대 산림환경학과는 중점 교육 분야는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환경 위생, 산림과학 및 산림 보호, 환경 산업 경영, 정치·경제·법, 사회 생태학, 도시 생태학 및 환경적 설계, 수자원 정책과 기술 등이 있다.

석·박사 과정을 통해 선택 강의로 기후대기 과학, 경제학, 생태학, 에너지와 환경, 화학, 환경 교육, 환경 역사, 환경 계획 및 정책, 산림 생태계, 환경 위생, 산업 생태학, 환경 윤리, 토양 과학, 조사 및 통계 방법론, 수자원, 야생 생태계 보호 등에 관해 배울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실제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직접 선정해 수행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정부기관, 회사, NGO 또는 개인 고객에게 영상 제작이나 언론보도 또는 조사 등의 실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일대의 산림환경학 박사학위를 받은 서울대 박주영 박사는 “예일대는 환경과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국제적 이슈에 있어 실제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주 세미나가 진행된다. 실습교육 과정에는 조사연구, 제도, 회의참석, 특별 프로젝트 수행 등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 주요기사



누

[인사말](#) | [회사소개](#) | [본사지사소개](#) | [광고안내](#) | [채용안내](#) | [이용약관](#)

인터넷 환경일보

등록연월일:2005.8.8 등록번호:서울아00012 인터넷주소 www.hkbs.co.kr

주식회사 환경일보 발행·편집인/이미화, 편집대표이사/김익수

주소: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15-12 환경일보 Tel: 02)715-7114 / Fax: 02)715

Copyright (c)HKB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